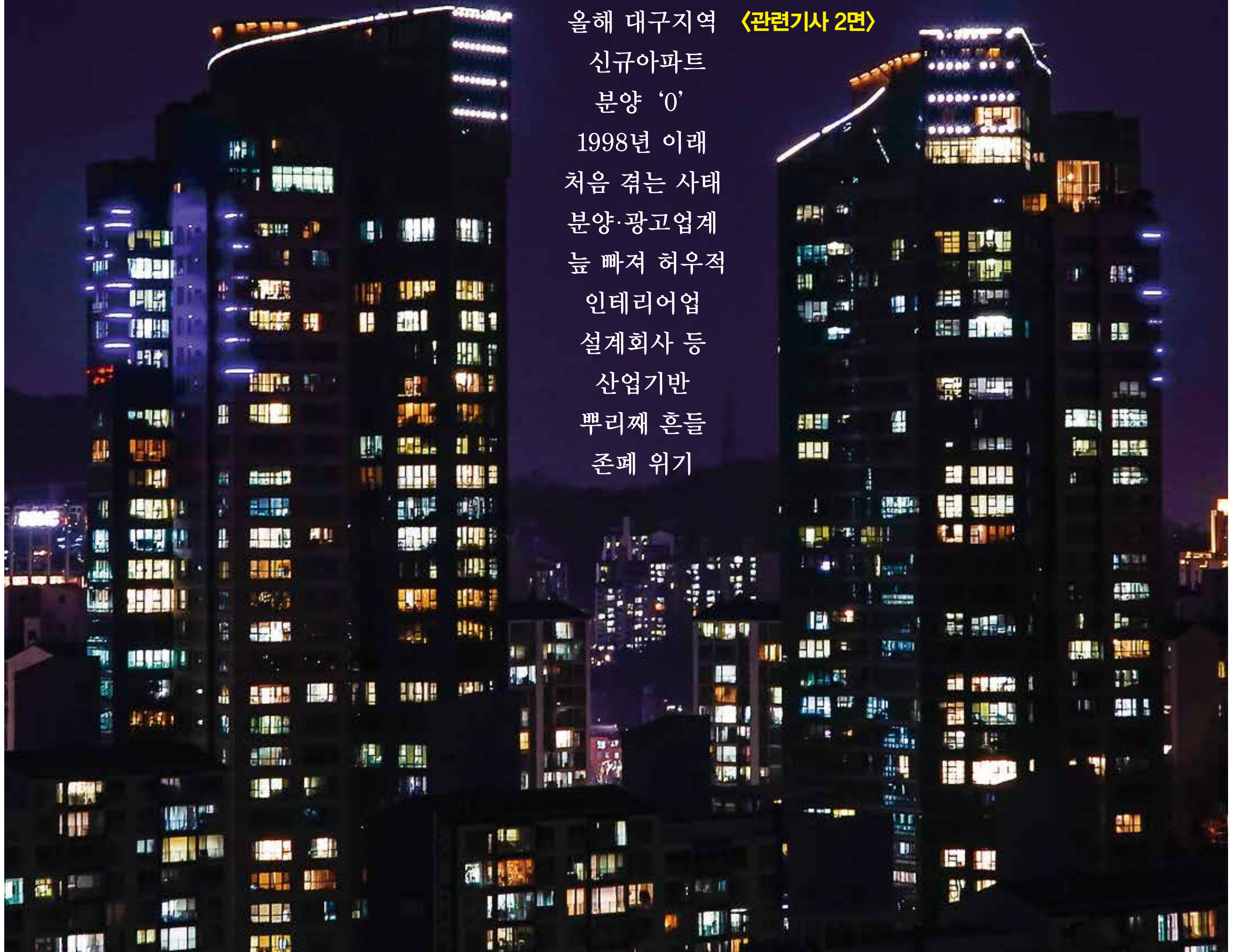


## 대구·경북 건설경기 최악.. 폐업신고 건설업체 수두룩



올해 대구지역 <관련기사 2편>

신규아파트

분양 '0'

1998년 이래

처음 겪는 사태

분양·광고업계

늘 빠져 허우적

인테리어업

설계회사 등

산업기반

뿌리째 흔들

준폐 위기

25 창간



최고가 이야기하는

#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 대구 경북 아파트 경기 수렁에 빠져 허우적...

올 신규 분양아파트 완전 무 1998년 통계 작성 이래처음 관련업종 분양·광고대행 등 못살겠다 줄도산 사태 우려 대구·경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건수 38건... 존폐위기

대구·경북 건설경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속출하고 관련업계 마저 길거리로 나왔었다. 최대 위기다. 어쩌다가 이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 대구 '문 닫는' 건설사 속출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폐업을 신고한 대구와 경북의 건설업체가 237%나 급증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25일 현재 대구·경북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3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16건보다 2.37배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신고건수 20건에 비해서는 2배에 육박한다.

대구의 종합건설사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전년 같은기간(8건)에 비해 무려 5.33배나 폭증했다.

경북은 22건으로 13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신규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대구의 주택 착공 물량은 1067가구로 전년 동기(1만1098가구)에 비해 90.4% 감소했다.

같은기간 아파트 분양은 34가구로 전년 동기(8500가구)보다 99.6%나 줄었다.

지역 전문건설사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대구·경북 전문건설사의 폐업 신고건수는 219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69건보다 1.3배 증가했다.

대구는 63건으로 40건 대비 57.5%, 경북은 156건으로 129건 대비 20.9% 각각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전면 스톱되면서 공사 수주가 급감한다. 고금리에 원자재값까지 오르면서 문을 닫는 건설회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 대구 신규 분양 '제로'

미분양 물량 적체에 따른 신규 분양 '제로'(0) 여파로 대구의 분양 관련 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대구지역 분양·광고대행 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기준)는 단 1가구가 없다. 지난 5월 달성군에서 선보인 34가구는 후분양단지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분양 제로' 현상이 나타나자 관련 업종인 분양·광고대행, 인테리어업, 설계업체 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간 개점 휴업 상태로 존폐 위기에 놓이자 대구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광고회사는 20명의 직원을 지난 6월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미지도 버거운 상황이다.

역외업체들의 진출로 지역 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외지 건설사들의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신규 분양 단지 151개 중 외지 건설업체 현장은 120곳이다.



지역 광고업체가 분양 광고를 수주한 단지는 26곳(21.7%)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벌 언덕도 없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외업체의 지역건설공사 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도 권장하고 있지만 분양대행이나 광고, 인테리어업은 하도급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뒷전으로 밀려나지 오래다.

신규 분양 때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관련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분양 관련 업체는 내년 신규 분양에 나서는 후분양 단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미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20곳의 후분양 예정 단지 대부분이 외지 건설업체 물량이기 때문이다.

최종태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은 "내년에 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 대구 미분양 사태...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지역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대구는 세종, 인천 등과 함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인데 올 상반기 집값이 다소 반등한 세종, 인천과 달리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제2금융권 대출 위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5월 기준으로 2018년 194가구, 2020년 1159가구에서 올해는 1만2733가구로 급증했다.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전국(6만8865가구) 전체 물량 가운데 18.5%로 가장 많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 1만539가구로 1만 가구를 넘어섰고 지난 2월 1만3987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소진됐다.

하반기 후분양 공급이 예고돼 있어 미분양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 후분양도 5월 기준 2018년 114가구, 2020년 28가구로 감소하다 올해는 919가구로 폭증했다.

주택매매 가격 하락률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14.2%로 전국 평균(7.5%)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쌓여 있는 미분양에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 가격 동반 하락으로 수분양자 사이에서 분양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일부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 부실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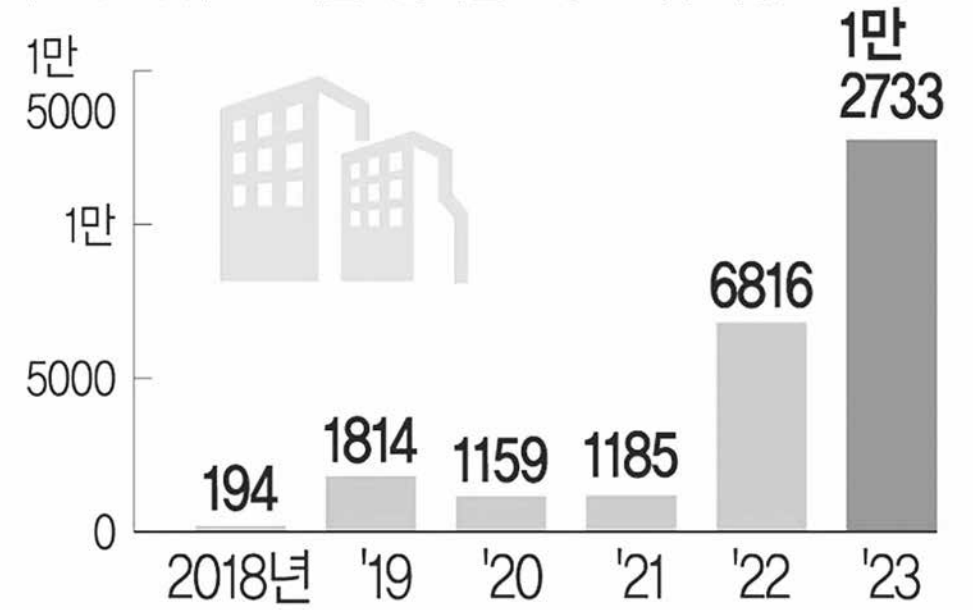
### 대구 중·남구, 포항·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란 열린 제8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4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1월9일까지

###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 추이

(단위:가구) ※매년5월 기준 자료:대구시청



로 연장했다. 이들 지역의 당초 지정 기간은 이달 9일까지였다.

대구의 10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만37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으며 남구가 2329가구, 중구는 1039가구다.

포항시의 미분양 물량은 2873가구, 경주시는 1418가구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난 2월부터 요건이 강화됐다.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올해 대구 부동산시장 이슈

대구지역 부동산전문기업인 ㈜빌사부는 20일 올해 대구 부동산시장의 이슈로 '역대급 입주 물량', '신규 분양 제로', '미분양 폭탄' 등을 꼽았다.

첫번째 이슈는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이다. 올 한해 입주 아파트는 3만5000여가구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렸지만 우려했던 입주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하거나 분양 가격이 높은 단지, 외부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시점 매매가격 하락 및 전세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두번째는 신규 분양 물량 '제로'(0)가 꼽혔다. 대구는 지난 5년간 12만6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올해 분양 승인된 물량은 달성군 다사에 34가구가 전부다.

사업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막힌데다 경기침체,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분양률이 담보되지 않아 분양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세번째는 특별보증금자리 대출의 시행이다.

정부가 DSR 적용으로 대출이 막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

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데다 고정금리를 적용해 인기가 높았다.

네번째는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는 2020년 5만1395건, 2021년 2만1231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만1045건으로 부동산 통계가 도입된 이래가 가장 낮은 거래 물량을 기록하다 올해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1900건으로 전년(92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섯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5만8299가구인데 대구는 1만0376가구로 전국 물량의 17.79%를 차지한다.

여섯번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건변경과 할인 분양이다.

수성구 만촌 자이르네의 경우 분양가의 17~25%를 할인하는 특별분양을 실시, 서구서 히스타힐스는 10%, 두류역 서한이다음은 중도금 무이자에 15% 할인으로 분양을 완료했다.

일곱번째 이슈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다. 특별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난도 심각하다. 대구는 입주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며 전용 84㎡ 신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원대까지 급락했다. 기존의 비싼 임대료의 세입자들은 신규 아파트로 옮기면서 구축 아파트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자로 돌아서고 입주 아파트가 정리되는 과정을 밟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다"며 "대기 중인 후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와 분양 결과가 내년 대구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원문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시장, 'HAPPY 동행' 1호 기부자

###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돕고자 마련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페이 온라인 기부 서비스인 'HAPPY동행' 시행에 맞춰 20일 첫 번째 기부를 펼치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행사는 지난 4일 4개 기관의 HAPPY동행 업무협약식 후 경주페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다.

경주페이 앱의 HAPPY동행 사례로는 추운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은 따뜻한 보급자리가 필요한 분과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폐지를 주

어야하는 장애인 노부부 사연이 올라와 있다.

모금액은 목표액에 충족되거나 모금기간이 지나면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기부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경주페이 앱을 이용한 기부는 1000원 이상의 소액으로도 기부가 가능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복지단체 등과 협약이 체결돼 기부금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강화됐다.

기부한 시민들에게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부방법은 경주페이 앱에 접속해 HAPPY동행 아이콘을 클릭한 후 사연을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1000원 이상 총전금액 내에서 기부하면 된다.

시는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 경주페이 제1호 기부서비스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문화 확산과 행복한 새로운 기부문화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시 올 한해 참 잘했다... 각종 평가 1위 등극

### 2023 을지연습 시·군 평가 1위 경주천년한우 농림부장관상 수상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 최우수상

경주시가 올 한해 각종 상을 휩쓰는 영예를 안았다.

####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 최우수

경주시가 경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는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쌀 적정생산 추진, 국비 확보 및 식량산업 육성 노력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전년 대비 256ha 벼 재배면적을 감축,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4억9500만원 예산(시비)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억2000만원 예산(시비)을 추가 편성, 삼광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전지원금 20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지체 특수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국비 공모사업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4개 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1개 단지가 선정됐다.

고영달 농업정책과장은 "짚은 이상기후 발생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게 되니까는 지역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천년한우 수상

2023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지역 대표 한우브랜드인 '경주천년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주천년한우는 2008년 브랜드 출범 이후 13년 연속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9회 수상 등 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수상으로 브랜드 운영지원 자금 6억원(무이자 1년 상환)을 지원받게 됐다.

경주천년한우는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확보'라는 가치 아래 전국 최초 한우사육단계 HACCP 인증과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 황금마크) 등 명품브랜드 인증을 받은 지역 대표 한우브랜드다.

경주축산농협 하상욱 조합장은 "앞으로도 경주천년한우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경주천년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앞

으로도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브랜드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2023을지연습 시·군 평가 1위

경주시가 '2023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 주관 '2023년도 을지연습 시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경북 10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 중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국가 위기 대응과 전시 대비 연습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다.

을지연습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의 구비·보완·숙달을 위한 훈련이다.

시는 내실 있는 전시현안 과제제외와 효율적인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군부대와 경찰, 소방 및 기타 유관기관의 높은 참여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함께한 실제훈련은 실전 같은 시나리오와 드론 등 현대전을 감안한 장비 도입으로 내실있는 훈련을 수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평가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주시, 북군동 식당가 도로 확장... "숨통 트였다"

### 사업비 13억 왕복 2차선 확장 정주여건 개선 행정력 집중

주말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 왔던 북군마을이 경주시의 발 빠른 행정으로 숨통이 트였다.

경주시는 구간 단일 차선으로 차량 교행이 어려웠던 북군동 식당가 진입로 150m 구간을 2차선 도로로 확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 초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주 북군마을은 지역 관광명소인 버드파크와 동궁원이 있는데다, 식당 50여 곳이 몰려 있어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탓에 교통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가장 먼저 북군동1·2공영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초입부 개선으로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 나섰다. 실제 공영주차장 2곳이 조성된 이후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병목구간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 확장을 추진했다.

더 확보에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으로 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도로 확장 이후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할 수 있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선마다 규제봉을 설치해 갓길 주정차를 사전 방지했다.

이번 북군마을 진입도로 확장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소방도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군마을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표적 식당가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업"이라며 "경주시는 도로 신설과 확장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화랑대기 전국태권도대회 성료

2023 화랑대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내렸다. 지난 16,17일 이틀간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광주, 일본나라시 등 총 127팀 2013명이 참가해 각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는 △품새(국선부)는 드림태권스쿨 △품새(화랑부)는 장무체육관 △품새(남도부)는 천년태권도 △겨루기(화랑부)는 김만규태권스쿨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는 천년태권도 이재윤 △최우수 지도자는 천년태권도 최준현이 수상했다.

#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마련

### 12월부터 3개월간 기동복구 3개 반 편성 긴급복구 나서

경주시가 동절기 한파로부터 계랑기 동파와 수도관 동결 예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동파 예방요령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면서 계랑기 보온 상태 등 관리상태 점검에 나선다.

수도계랑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은 자체 기동복구 3개 반을 편성해 동파된 수도계랑기 신속 교체와 수도관 동결 또는 누수지에 대한 긴급 복구에 돌입한다.

수도계랑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계랑기 보호통과 뚜껑의 틈새를 비닐 등으로 막고, 마른 헨 옷가지로 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녹이면 열손상이 발생하므로 헤어드라이어 가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여야 한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강하거나 동파 위험이 있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약

간 열어서 수도물이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도계랑기 동파될 시 경주시 상수도과(주간 054-760-7842, 주말 또는 야간 779-8886)이나 경주시콜센터 바로콜(779-8585)로 신고하면 된다.

윤용찬기자/사신 경주시제공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수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며

길

경주 지역을 넘어 영양까지 걷기 좋은 길

빛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며

심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며

맛

영양 특산물 맛보기

영양

영양 특산물 맛보기

##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릉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도, 삼이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칠백공원, 천택수원, 외씨배서굴
- 영양의 역사: 일월산(비밀),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질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문화박물관, 반딧불이전원,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부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박물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물박물관, 본채수석(사생)전시관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영덕 샤인머스켓, 내년부터 대만 수출길 열려



울릉새마을부녀회 떡국 나눔

울릉군 새마을부녀회가 19일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지역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떡국 떡, 소고기를 포장해 읍면별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150여 가구에 새마을회원들의 손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박명숙 부녀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부녀회원들은 따뜻한 새해를 맞이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했다.

남관권 울릉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받는 사람 모두가 새해에는 건강하고 따뜻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해양과학관, 사회공헌 인증

국립해양과학관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설립 후 최초로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및 기관을 발굴, 그 공로 및 성과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해양과학관은 2020년 5월 출범 이후 ESG 경영전략을 수립해 △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나눔교육 △지역민·특수아동 대상 나눔투어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학생 및 자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경수 기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대만 수출 판로개척 성과

영덕군의 신선농산물이 대만수출길에 올랐다. 내년부터 샤인머스켓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수출 판로개척을 타진했다. 개척단은 사과, 포도, 배, 배추, 양배추 재배 농가 대표들과 농업회사법인 라온 주식회사로 구성됐다.

이번 대만 방문은 지난달 대만 현지 바이어들을 두 차례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영덕군은 신속한 대만 현지 방문을 통해 바이어와의 추가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견학해 생생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수출 성사의 고삐를 죄는 복안이 었다.

개척단은 타이베이와 원린 씨루오의 이구오(益果), 평쉬엔(楓軒), 춘송(春松), 진란(沁嵐), 디엔한(典韓) 등의 현지 채소·과일 바이어 회사들을 방문해 대표 및 임직원들과 실질적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결과 영덕군 샤인머스켓이 내년부터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추가되는 결실을 이뤘다. 또한 현지의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돼 실제 어떻게 판매되는지 현장을 점검해 효과적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구상기도 했다. 조여은 기자



올해 포항시 7.4조원 투자 유치

경북도 평가 3년 연속 '대상' 이강덕, 맞춤형 행정지원 최선

포항시가 올해 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의 면모를 과시했다.

포항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군 자치단체와 공무원 부문에서 3년 연속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최대인 7조 4,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유치 전략, 인프라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전체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군 자치단체 부문대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투자기업지원과 감염은 주무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투자기업 부문에는 영일만4산단 입주기업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 7월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을 가공·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영일만4산단에 1900억 원을 투자해 1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추가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8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0년간 총 16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 중 올해만 7조 4000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해 3000여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포스코퓨처엠(화학코발트JV 포함) 2조 5000억 원(이차전지), 예코프로 3조 원(이차전지), SK에코플랜트 1조 5000억 원(데이터센터), 동국산업 1000억 원(이차전지) 등 이차전지 분야가 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이러한 이차전지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관기술센터,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더불어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탄탄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명 기자

울진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 열린다

22일 연호문화센터서 개최

울진군은 오는 22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울진군민과 함께하는 '2023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한 해 동안 고생한 군민에게 보내는 위로 메시지'로 기획된 이번 송년 음악회에는 울진군 연예인 협회의 1부 공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김의지, 배우 안홍진, 친숙한 가요 공연과 플룻리스트 서가비와 전자현악 공연팀인 오드아이의 신나는 연주

가 2부 공연으로 준비한다. 또 미스터롯의 인기 가수인 김수찬의 멋진 공연으로 힘든 해를 보낸 울진군민을 위로하며 희망과 힘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울진군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송년복 울진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군민들을 위로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풍성한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김광열, 목민감사패 수상

김광열 영덕군수가 지난 19일 '2023 조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시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평가해 국회의원에게 '조

정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목민감사패'를 시상한다.

김군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인 '전통시장 러브투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 지역 화폐 '영덕 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하게 됐다.

조정대상 14명, 목민감사패는 9명이 선정됐으며, 군 단위 지자체장으로는 김군수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여은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Table with columns: 단지역, 소재지, 주요 입주업체,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분양가격, 분양문의. Includes logos for KEPCO and KEPCO Energy Services.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자나깨나 불조심... 겨울철 화재예방에 비상

### 칠곡소방서, 겨울철 화재 캠페인 청도소방서, 용접 화재주의 당부



최기문 영천시장은 21일 오전 영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 영천시 새마을종합평가 및 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자양면 보현2리 보현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자양면 보현지구 지방상수도 통수식에 참석한다.

남성현초 학생들 창의성 빛나



청도남성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쳤다.

학생들이 꾸민 특별한 이벤트로 올해 마지막 학생회 행사로 의미가 깊었다.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학교 건물 내부와 어울 동산 일대를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으로 꾸미고 학교내 각 층마다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특히 학생자치회 임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영천축산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천시는 지난 19일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2023년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축산업무 종합평가는 경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업 육성 시책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 발굴, 축산분야 평가지표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걸쳐 축산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2023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도 영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불을 가까이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소방서별 취약 부분을 찾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칠곡소방서,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화목보일러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칠곡소방서는 19일 석적읍 일원에서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석적남여의용소방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홍보, ▲겨울철 화목보일러, 난로 등 화재예방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이 있다.

민병관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안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주의 당부  
청도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불티화재는 평균적으로 매년 1천여건 이상 발생하며, 4백여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약 2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접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으로 비산된 후 상방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작업장 내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부근 가연물 제거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 통보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 결핍 여부 확인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이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작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의는 지난 19일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한 해 연간일정을 마무리했다.



## 고령군-화순군 맞손... "젊은 힘으로, 새롭게 시작"

###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협력 통한 공동발전 도모

고령군은 지난 19일 대가야홀에서 전라남도 화순군과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남철 고령군수와 구복규 화순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자치단체간 협약서명과 기념품 교환 등 양도시간 협력을

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했다. 두 도시는 △관광·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협력 △지방소멸 대응과 고향 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세수·교부세 감소, 지방소멸, 인구감소라는 난제 속에서 MOU를 통해 경제, 역사문화, 복지,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력을 통해 두 도시의 상생발전으로 지방시대의 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 및 축제 방문을 통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하여 공유·협조를 통해 양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배영백 기자

## 영천시,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국무총리 표창'

### 청소년 메타시티 YOUNG천점' 구축 청소년 모든 활동 한곳에서 기회 마련

영천시는 20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정부포상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참여, 보호·복지, 지역특화 분야를 평가해 청소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수여했다.

시는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참여 활성화 도모, 사회안전망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영천시 유일의 지역특화 사업 추진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특화 가상공간인 '청소년 메타시티 YOUNG천점'을 구축해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사업은 청소년자치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 1:1 상담 및 심리검사, 지역 가상 명소의 영천9경 등 4개

분야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활동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특화시설인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역특화 홍보체험관, 미래직업 체험관, 트렌드 콘텐츠 체험관 등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인재 양성의 기회로 청소년 진로체험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 돼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칠곡군의의회 제296회 정례회

### 추경, 2024년 예산안 심의, 의결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확정했다.

칠곡군은 2024년도 예산으로 7163억원을 요청

했으나 민생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된 59억원이 삭감되고 기금운용계획안 63억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분 17억원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2023년 회기 운영일수를 2일 늘려 총 94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6회-49

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심청보 의장은 "의회 연간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재난예방과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이 최종협의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 고령군의의회는 군민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령을 밝히는 새로운 불빛 | 고령군의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마다 울려퍼지는 사랑의 이웃돕기 킬바람도 비켜가

### 김주수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2심서 무죄 행정 가속도 붙어 각종 상 휩쓸면서 '풍요의 땅' 의성건설 박차... 행정 총동원

의성군의 연말이 참 따뜻하다. 의성군민의 삶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 상승했다.

고을마다 울려퍼지는 사랑의 이웃돕기는 매세운 칼바람마저 고개속이다.

무엇보다 김주수 의성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2심서도 무죄를 받아 행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청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며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사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계미년 한해 의성군이 각종 상을 타면서 '풍요의 땅' 의성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삶과 지역 만족도 행복감 상승

의성군은 군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과 사회적 관심사 및 주관적 의식 등을 조사한 '2022 기준 경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조사 결과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2점으로 전년도 5.85점 대비 0.57점 상승, 도내 3위를 기록했다.

주택, 상하수도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 등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10.3%p 상승했다.

향후 10년 후에도 의성군에 거주할 의향을 묻는 정주 의사 결과는 84.2%로 도내에서 가장 높아 지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걸친 군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행복감도 늘었다.

의성군 특성 항목 중 군민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구 늘리기'가 32.9%로 가장 높았다.

'각종 일자리 창출'이 28.4%로 뒤를 이었다.

인구 증가 정책 방안으로는 귀농귀촌자 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결혼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업무계획 수립이나 정책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사회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누리집(www.u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가 추진한 '2022 경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22~9월 6일까지 16일간 진행됐다.

의성지역 만 15세 이상 72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인구 △노동 △소득 △소비 △문화·여가 △교육 △의성군 특성 항목 등 지역사회와 관련된 48개 항목을 조사했다.

### ■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대상' 수상

의성군이 '2023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 상식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일자리 창출 실적과 투자유치 특수시책 발굴·시행 등을 평가했다.

지난 1년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에서 의성군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략과제를 선정,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다지기 위해 총사업비 422억원을 전액 군비로 투자,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했다.

90억원을 들여 세포배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성장산업 동력인 세포배양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연관산업의 육성에 매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관내 투자유치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74억6000만원) △의성위라밸북북합분화센터건립(100억원) △세포배양지원센터 GMP구축(94억원) △단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42억원)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통한 시설기반을 건설하고 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취약지역 공전전환 지원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세포배양 인재양성 혁신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경로와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며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 의성을 만들어 나간다.

### ■ 2023 농촌활력평가 '대상' 수상

경북도가 주관한 '2023년 농촌활력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촌활력분야 평가는 경북 22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16개 지사를 대상으로 농촌개발, 농산어촌 등의 주요업무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을 선정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평가이다.

군은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2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8지구 △마을만들기 7지구 △취약지역생활환경개선(새뜰마을) 8지구 △농촌유휴시설창업지원사업 1지구 등 총 26지구를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섰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저수지정비사업 6지구 △용배수로정비 19지구 △양배수장 및 관정개발 14지구 △저수지정밀안전진단 4지구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 2지구 등 총 45지구를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업환경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6월 농촌협약,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도 큰 호평을 받았다.

농촌협약은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254억 등 총사업비 464억원을 지원, 동부생활권 10개(의성, 금성, 봉양,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안평) 읍면에 대한 보육·문화·교육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금년에 4개 지구(비안 장춘2리, 의성 비봉1리, 금성 대리1리, 단밀 생송1리)에 대한 공모에 선정됐다.

국도비 68억원 등 총사업비 85억원을 지원,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지속적인 정주생활여건 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농촌 활력에 힘쓴다.

### ■ 사곡면, 쓰레기분리수거장 우수마을

의성군 사곡면 주민자치회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현장평가에서 우수마을 3곳을 지정하고 시상했다.

사곡면 주민자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순환경제(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를 위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 여부, 페트병 라벨 제거 유무, 분리수거장 청결 상태, 재활용 판매 수익 등을 3회에 걸쳐 평가해 항목별 평균 합계로 우수마을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신리리 마을 최우수(30만원), 오상2리 마을 우수(20만원), 신감1리 마을

장려(10만원)로 선정됐다.

이경훈 사곡면주민자치회장은 "마을 경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사곡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철우 면장은 "앞으로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작은 실천으로 마을환경 개선에 앞장서 클린사곡, 더 나아가 지구환경 살리기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 ■ 치매안심센터, 따뜻한 손길

의성군은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한 '틀려도 괜찮아' 안심마켓 판매 수익금(35만5000원) 전액을 기부했다.

'틀려도 괜찮아'안심마켓은 지난 10월 12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개최했다.

치매 환자들이 치유 농업 프로그램 및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수확물, 공예품 등을 판매했다.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한 어르신들과 의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금은 위기 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도 치매안심센터의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잘 지낸다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뿌듯하다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기부가 우리 이웃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의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 황금·농장 장학금 기탁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1천만원 기탁하는 단촌면 소재 황금농장 김후순 대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점곡면 소재 일송농장 문현숙 대표는 "지역발전의 중심인 인재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김주수 이사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주민 또는 출향인사들의 기탁금과 의성군 출연금으로 현재 2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500여명의 학생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사업 및 30억 규모의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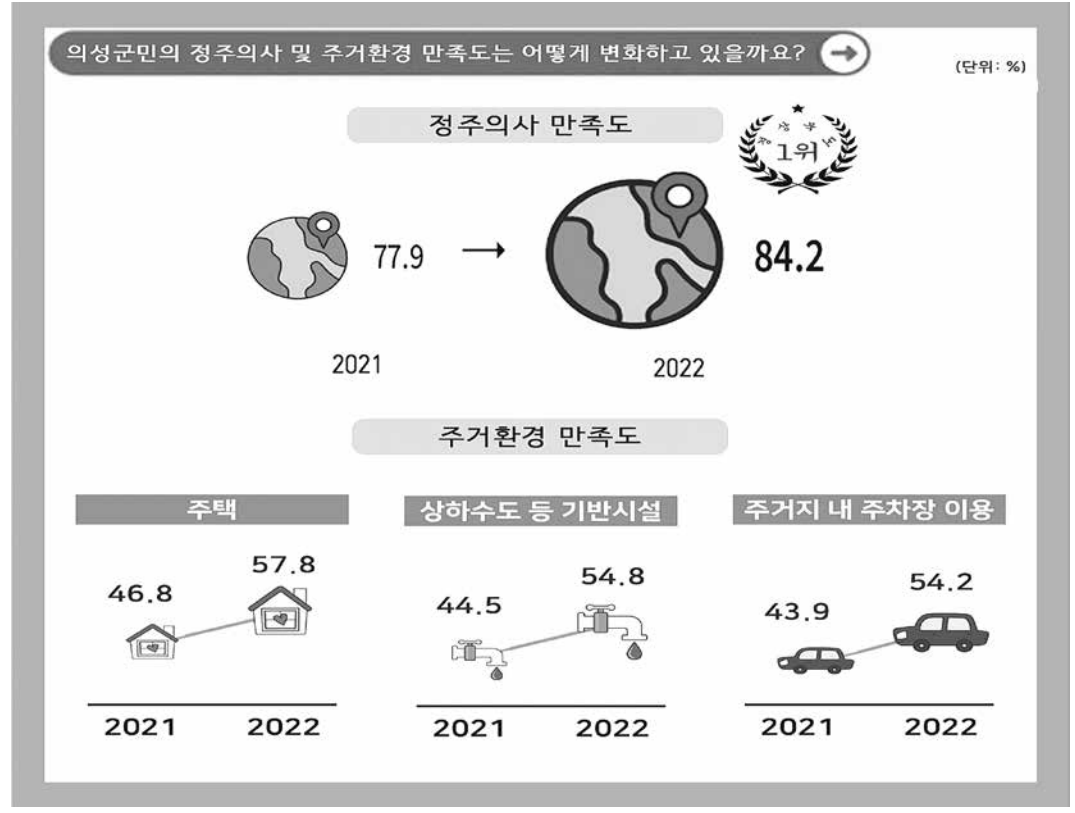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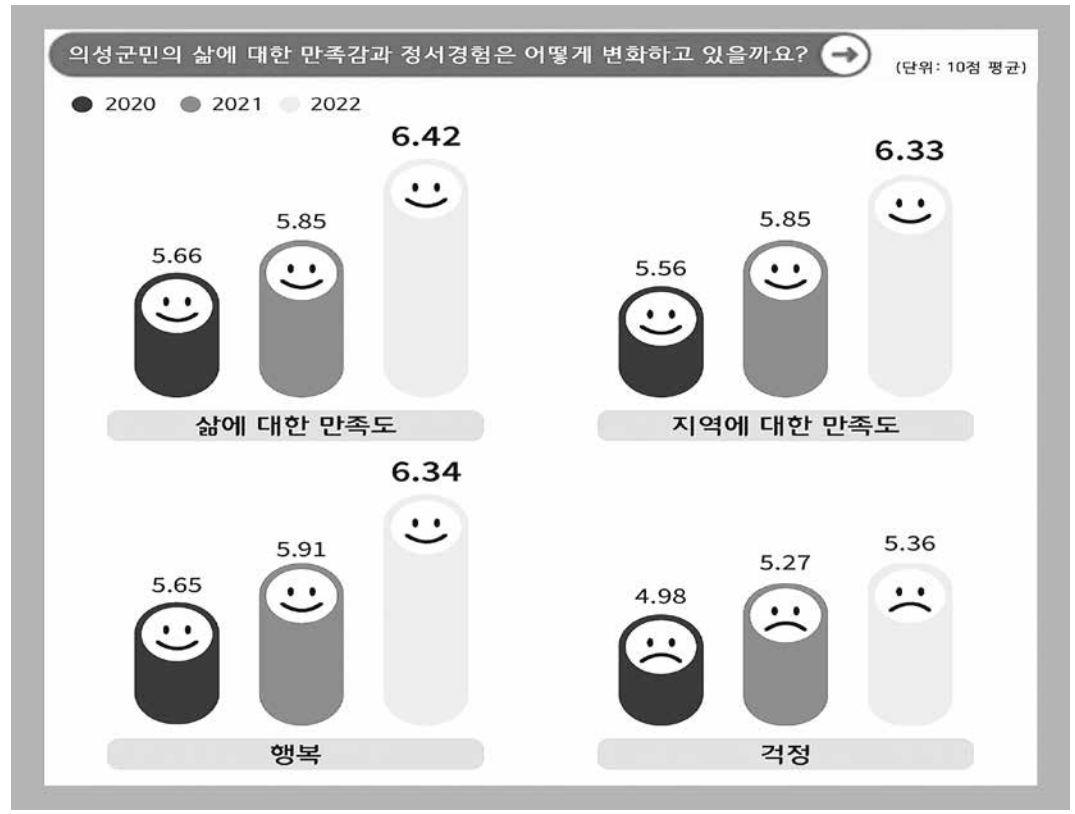
### ■ 가음면 조혜영 명예면장, 500만원 기부

조혜영 명예면장은 성금 모금행사 현장을 방문, "오늘의 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선 명예면장의 기부의 큰 뜻에 의성도 동참할 것"이라 밝히며 기부의 열기를 더했다.

조혜영 명예면장은 의성군 가음면 장리출신으로, 평소에도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아 지역의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는 등 많은 선행을 펼쳐왔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1일 오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리는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은 21일 오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한다.



청송군민 송년음악회 개최

청송군은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오는 2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송군민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송문화원이 주최하고 청송군청 문화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청송문화예술인 및 초대가수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먼저 청송문화원 풍물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청송 라온색소폰앙상블, 민요팀 가향, 청송 아코디언 동호회, 청송문화원 합창단 등이 연말 따뜻한 송년음악회를 선보인다.

또한 도시아이들, 양하영밴드, 김현정이 초대가수로 출연하여 히트곡 및 포크송 등으로 청송군민 송년음악회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멋진 공연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연으로 군민 모두가 한해를 마무리하며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안동시 민원콜센터 개소

안동시가 20일 '안동시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안동시 민원콜센터는 One-Stop 민원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개소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민원콜센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상담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상담 운영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인력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준길 기자

영양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확 높인다

도 공모 선정, 도비 확보  
총사업비 8000만원 규모  
생산시설 현대화 등 추진

영양군은 국내 수출농식품 가공업체 대상 '2024년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비 1400만원을 포함한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출의지가 높은 중소 농식품 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와 신

규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북도 공모사업이다.

영양군은 수출가공업체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국제인증획득, 국제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도 사업은 영양군 관내 수출농식품 가공업체 중 영양고추유동공사를 지원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이번 수출분야 공모사업에 선정을 계기로 관내 가공농식품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수출농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시,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우수기관

한자 작성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민원인의 접근성 개선 인정 받아

영주시는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1년의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실적 △토지 이동 처리실적 △지적측량 검사실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총 12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한자로 작성돼 읽기 어려웠던 구(舊) 토지·임야대장 17만9000여 장을 48년 만에 한글화하고 민원인의 지적업무 접근성을 크게 개선

시켰다.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 일제에 의해 한자로만 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토지표시사항(소유자, 면적 등) 전체를 한글화하고 원문을 고해상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또 정확하고 빠른 지적측량성과 제공, 드론을 활용한 수해 피해지역 조사 및 복구경계 지원, 드론 인력양성을 통한 선진적 공간정보 정책 실현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토지행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영주발전의 청신호가 될 영주대 준공으로 수변도로, 전통문화 체험장, 물문화관 등 댐주변 지구내 현황에 따른 3500여 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공부정리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2024년에도 최고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수의계약 총량제 '효과 있네'

2억원 이상 계약업체 감소  
안동시, 공정·신뢰성 높여

안동시가 도입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계약편중 해소,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부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공사 수의계약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업체별 공사 연간 최대 2억 원까지만 계약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월~11월 2억 원 이상 계약한 업체의 계약건수는 1004건으로 전체공사의 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같은 기간에는 492건으로 전체공사의 15%로 줄었다.

이는 계약건수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계약편중을 방지하며 더 많은 지역업체에서 골고루 수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2억 원을 초과할 수 있는 업체 현황을 모니터링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재해나 농번기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발맞춰 200만 원 이상 계약 정보를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계약 투명성도 확보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수의계약 총량제 미비점을 보완해 2024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봉화군의의회, 5400억원 내년 예산안 의결

집행부 상대 균정질문 펼쳐  
본회의 마치고 정례회 폐회

봉화군의의회는 20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균정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균정 업무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균정 현안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졌다.

또 봉화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봉화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적체

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총 5,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난 19일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상대로 균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균정질문은 이서훈 의원, 금동윤 의원 2명의 의원이 균정질문했다.

이서훈 의원은 신속·정확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가스 및 상수도 등의 공공재 보급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금동윤 의원은 주요 관광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 및 민선 8기 봉화군의 미래를 향한 관광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 균정질문을 이어갔다.

김상희 의장은 "집행부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균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올바른 균정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갑진년 새해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예천군, 올해 재난관리 평가서 행안부 장관 표창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 선정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받아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 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2023년 재난관리평가는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6개 분야 43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재난관리 추진실적,

성과 등을 종합평가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 △재난유형별 저감 활동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실적 △위기 매뉴얼관리 및 개선 실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재해구호 인프라 및 복구사업 관리 실적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민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과 위상을 입증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욱 기자

안동시, 산림산업관광 평가 공로상

안동시가 지난 19일 경북도가 주관한 2023년 산림산업관광분야 종합평가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산림산업관광분야 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산업관광 정책, 산림레포츠 및 녹색환경 확충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올해 안동시는 도청신도시 도시숲 조성 및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동시는 도청신도시 녹지, 조경관리를 위해 매년 수목정전, 병해충방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상시 관리인력 12명을 배치해 관수, 예초, 한해 및 동해대책,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일원에 소나무 도시숲을 조성하는 한편, 도청대로 등 신도시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분 360개, 오브제(꽃줄기대)화분 240개를 설치하고 임파센스, 페튜니아 등 다양한 계절 초화를 식재해 아름다운 신도시 경관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금출 공원녹지과장은 "도청신도시는 안동을 넘어 경북도의 얼굴인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꿈나무육성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일반부  
 -신페리오  
 ●남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여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 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